

베토벤과 융*

조 수 철**

국문초록

음악은 인간의 정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분석심리학의 이론에 따르면 음악은 인간 정신의 표현인데 특히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음악과 인간의 심성 탐구에 있어서 각각 뛰어난 업적을 남긴 베토벤과 융에 대하여 발달과정,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공통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한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베토벤과 융 모두 심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하여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자가 공통적으로 성취한 가치는 대극의 합일이었으며 통섭적 접근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대극을 초월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고 있다.

중심 단어 : 베토벤 · 융 · 발달과정 · 성찰 · 대극의 합일.

들어가는 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은 1770년 12월 16일 독일의 본에서 태어나 1827년 3월 26일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났다. 시대적으로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초기에 걸쳐 살면서 고전주의를 집대성하고 낭만주의의 문을 연 작곡가로 평가를 받는다. 성악과 기악의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개혁을 하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접수일 : 2011년 7월 8일 / 심사완료 : 2011년 11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2일

*본 논문의 요지는 2006년도 4월21일 한국 융 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되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

음악가로 음악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음악가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¹⁾ 융(Carl Gustav Jung)은 1875년 7월 26일 스위스 동북부, 투르가우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61년 6월 6일 퀴스나하트의 호숫가에서 서거하였다. 바젤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크라프트 에빙(Kraft Ebing)의 정신과 교과서에 “학문분야의 특이성과 그 형성의 불안정성 때문에 정신과 교과서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다”는 말과 “정신병을 인격의 병”이라고 한 대목에 큰 영향을 받아 정신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이후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을 주장하였으며 이것을 분석심리학이라 이름하였다.²⁾

음악은 인간에 대하여 의식 또는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악과 분석심리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정신분석학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무의식세계를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이 프로이트학과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무의식이란 한 개인의 특수한 생활체험과 관련이 되며, 개인의 성격상의 특성을 이루는 무의식을 의미하는데, 한 개인이 이 세상에 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생활에서의 체험내용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잊어버린 것,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억압된 것, 의도적으로 억압시킨 괴로운 생각이나 느낌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집단적 무의식이란 개인적 무의식보다 훨씬 더 깊은 층에 위치하는 심성의 부분인데 개인의 특성보다는 인류 전반의 특성을 부여하는 무의식적 요소들을 이른다. 집단적 무의식은 꿈, 문학-예술작품, 종교의 형태로 표현된다.³⁾ 개인의 무의식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집단적 무의식이 표현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러한 원형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베토벤과 융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과정,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이 그들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였던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조수철(1996) : “Beethoven의 生涯와 音樂-發達學的 觀點-“, 《精神醫學》, 21(1) : p16.

2)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12.

3) 이부영(1998) : 앞의 책, p300.

베토벤의 삶과 음악

1. 베토벤의 조상 및 가족관계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본에서 태어났다. 베토벤의 조상은 벨기에의 말린스(Marlines) 지역에서 살았다. 조부 루드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부터 본에서 살게 된다. 베토벤은 조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Johann van Beethoven)은 궁정음악가가 되었고, 비교적 훌륭한 음악선생이었으나, 말년에는 알코올 중독증에 걸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베토벤의 어머니 마리아(Maria Magdalena)는 원래 시종무관과 결혼하였는데, 1765년도에 남편이 사망한 후에 베토벤의 아버지인 요한과 1767년에 재혼하게 된다. 요한과 결혼 한 후에 일곱 남매를 두었는데, 4남매는 어려서 사망하고 세 아들만 생존한다. 베토벤의 형이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베토벤이 장남역할을 하게 된다. 어머니는 베토벤의 나이 17세 때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으며 상당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⁴⁾

2. 베토벤의 어린 시절-본 시절

1774년경, 베토벤의 나이 4세 때에 음악적인 재능이 처음 드러났다는 기록이 있다.⁵⁾ 정규교육은 티로키니움(Tirocinium)이라는 라틴계통의 초등학교 과정을 밟은 것이 전부인데 1777~1780년까지 다녔다. 이 학교의 교과과정은 아주 특이하여 쓰기나 수학과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베토벤은 나중에 음악교육과정, 특히 대위법공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신의 교육이 부족함을 느껴 19세 때에 본 대학의 철학과에 청강생으로 등록하여 강의를 듣는다. 최초의 스승은 아버지 요한이었다. 그 후 다른 음악선생님들로부터도 음악교육을 받는다. 이덴(Heinrich van den Eeden)은 궁정의 오르간연주자로서 베토벤에게 음악이론과 피아노를 가르친다. 1779년부터 1781년 사이에는 파이퍼(Tobias Friedlich Pfiffer), 로바티니(Frantz George Rovatini), 코흐(Willbard Koch), 리이스(Frantz Anton Ries), 젠저(Zenser), 네페(Christian-Gorrlab Neefe) 등으로부터 사사를 받게 되는데, 특히 네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1787년에 비엔나로 가서 모

4) Scott MM(1974) : *Beethoven* : JM Dent and Sons LTD, London, pp1-10.

5) 본 생가 기념관의 연대표.

차르트를 만나서 즉흥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연주를 들은 모차르트는 “이 젊은 이를 눈 여겨 보라. 이 젊은이는 언젠가는 세상에 대하여 큰 소리를 지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평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 해에 베토벤은 어머니를 잃는다. 1791년(21세),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하이든이 본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스승 네페의 소개로 베토벤이 하이든을 만난다. 베토벤의 천재성을 알아본 하이든이 베토벤을 초청하여 이듬해 비엔나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이후 베토벤은 그의 전 생애를 비엔나에서 보내게 된다.⁶⁾ 비엔나에서의 베토벤의 음악의 발달단계는 3기로 구분된다.

3. 제1기의 삶과 음악세계(모방의 시기, Period of imitation)⁷⁾

비엔나로 유학 온 1792년부터 1802년 하이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쓰기 전까지를 제1기라 이르는데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등 선배 음악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에서 ‘모방의 시기’라고도 한다. 베토벤은 1792년 11월부터 1794년 1월까지 하이든에게 음악교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크게 실망한 나머지 다른 음악선생을 찾아 나선다. 이리하여 만난 선생이 쉥크(Johann Schenk)였고 그로부터 “대위법”을 배운다. 1793년 작품번호 3번인 현악 삼중주곡(Trio for strings, Op.3)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베토벤의 작품활동이 펼쳐진다. 1794년 베토벤은 알브레흐츠버거(Albrechtsberger)를 만나서 “대위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또 살리에르(Salieri)를 만나서 이탈리아 풍의 성악과 오페라의 작곡법을 배우게 된다. 이 시기의 특히 중요한 작품으로는 제8번 피아노 소나타(비창)이다.⁸⁾ 이 곡은 베토벤의 창의력이 번득이는 작품으로 베토벤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는 평을 받은 곡이다.

4. 시대정신(Zeitgeist)

베토벤이 작품 활동을 하던 그 시기는 철학, 문학, 예술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꽃을 피운 시대였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1781), 실천이성비판(1788), 판단력 비

6) Forbes E(1967) : “Chapter V, The Years 1787-1788-The Operatic Seasons from 1789 to 1792”, *Thayer's Life of Beethoven, Revised and Edited by Forb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pp86-117.

7) Broyles M(1987) : “Part II : Beethoven's Early Style”, *Beethoven* : Excelsior Music Publishing Co, New York, pp39-96.

8) 조수철(1996) : “Beethoven의生涯와音樂-發達學的觀點-”, 《精神醫學》, 21(1) : p18.

관(1790) 등을 발표하고, 괴테의 에그몬트와 파우스트가 발표된다(1788). 이 외에도 쉴러, 키이츠, 워드워드, 바이런, 하이네, 푸슈킨, 유고 등의 시인과 문학가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친 시기였다. 베토벤은 이러한 철학자, 시인, 소설가들의 작품을 열심히 읽고 깊은 감동을 받는다. 이러한 작품들 외에도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 셰익스피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데스, 호머 등 고전을 열심히 읽고 음악적인 창조성을 키운다. 사회적으로는 프랑스 혁명(1789년)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탄생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베토벤의 작품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⁹⁾ 1801년은 베토벤이 처음 자신의 귓병에 대하여 친구에게 고백을 한 해이기도 하다. 귓병의 치료를 위하여 1802년 4월 하이리겐스타트로 요양을 떠난다. 요양 도중 베토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죽을 결심을 하게 된다. “하이리겐스타트의 유서”가 이 때에 쓰여진다. 이 사건은 베토벤의 정신적 발달, 인격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은 베토벤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자신을 청산하고 새로 태어나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5. 제2기의 삶과 음악세계(외향화시기, Period of externalization)¹⁰⁾

1802년 하이리겐슈타트의 유서사건 이후부터 1814년까지를 베토벤의 음악발달의 제2기라 이른다. 음악적인 특성이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며, 내적 갈등을 투쟁을 통하여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외향화시기라 일컬어진다. 이해에는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만스, G 장조(Op.40),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만스, F 장조(Op.50), 교향곡 제2번(Op.36) 등이 발표된다. 이 곡들은 비교적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을 주는 곡들이다. 엄청난 정신적인 위기와 이를 극복한 후, 인생에 대한 좌절에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깨달았을 때의 즐거움, 환희가 이 곡들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시기의 곡들 중 특히 “교향곡 3번 영웅교향곡”은 그 곡이 교향곡의 역사에 있어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역할을 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05년에는 피아노 소나타로는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열정 소나타(Op.57)가 작곡된다. 이 해에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곡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9) Knight F(1973) : *Beethoven and the Age of Revolution*, Lawrence and Wishart, London, pp26-35.

10) Broyles M(1987) : 앞의 책, “Part III : The Emergence of the Heroic Style”, pp97-172.

이 시기는 베토벤이 자신의 정신적인 갈등에 대하여 격렬하게 싸우고, 투쟁하며, 외적인 힘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제2기, 외향화 시기(Second period, period of externalization)”라고 명명되었다.

6. 제 3기의 삶과 음악세계(내향화시기, Period of internalization)¹¹⁾

1815년 베토벤의 동생 칼(Anton Carl Beethoven)이 사망한다. 이 후 수년에 걸쳐 자신의 조카인 칼의 양육권을 싸고 지루한 재판이 시작되고 결국 베토벤이 조카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다. 작품 활동으로는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2개의 소나타(No 4,5, Op 102-1, 102-2)”가 발표된다. 1816년에 이르러서는 베토벤의 관심이 다시 바로크시대로 되돌아가서 바하와 헨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작품 활동으로는 “피아노 소나타 제28번(Op.101)”, “멀리 있는 애인에게(Op. 98)” 등이 작곡된다. 1820년부터 1822년까지는 피아노 소나타가 집중적으로 작곡되어 최후의 피아노 소나타 제30번(Op.109), 31번(Op.110), 그리고 32번(Op.111)이 작곡된다. 1824년에는 교향곡 제 9번(Op.125)이 작곡된다. 1825년과 1826년은 후기 현악 4중주곡 5곡만이 작곡된다. 모두 극도의 성찰을 통하여 “완벽한 심적인 평화”를 성취한 작품들이다. 조용히 흐르나 그 속에서 엄청난 “내적인 힘”을 지닌 곡들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하나로 통괄된 곡들, 인격적으로 성인의 경지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음성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4악장, 5악장, 6악장, 7악장 등 자신의 감정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한다. 베토벤 자신이 평생동안 추구하였던 “완벽한 평화와 자유”가 이 실내악곡들에서 유감없이 구사되고 있다. 제16번 현악4중주곡이 작곡되고 사망까지 약 6개월동안 베토벤은 투병 때문에 작곡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베토벤은 병상에서 헨델 악보를 통하여 공부를 계속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는다. ‘나는 헨델 앞에서는 무릎을 굽힐 수 밖에 없다. 내가 만약 병에서 회복이 되어 작곡을 계속할 수 있다면 나는 헨델처럼 작곡을 하겠다’는 메모가 남아 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베토벤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1827년 3월 26일, 이 위대한 음악가는 세상을 떠나고, 3일 후 장례식이 거행된다. 안슈츠라는 시인이 조사를 낭독하고, 아이블러, 크로이체르 등 그 당시 비엔나의 젊은 음악도 8명이 운구를 하였다. 체르니, 슈베르트 등이 햇불 행진을 하였으며 그 당시 신문은

11) Broyles M(1987) : 앞의 책, “Part IV: The Evolution of the Heroic Style”, pp173-267.

약 15,000~20,000명의 시민이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7. 대인관계

베토벤은 주변사람들과는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켰다. 루드비히 켈스탐은 “베토벤은 성격상 일정한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고, 신들러도 “베토벤에게 있어서 1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좋은 대인관계가 유지되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기분의 변화가 아주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듯하다. 제자였던 체르니는 “때로는 우울한 적도 있고, 때로는 기분이 지나치게 좋아 활기에 차고, 장난기 서린 농담을 즐기기도 하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성장한 후의 대인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대리가족이 있었다는 점이다. 대개는 귀족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본시절에는 브로이닝, 코흐, 웨스트홀트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비엔나에서는 리히노프스키, 브른스빅, 기차르디, 다임, 비곳트, 에르뢰디, 말파티, 브렌타노 그라나타시오, 스트라이허 등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연인관계를 맺었던 모든 여인들도 모두 이 가족들내에 속하는 여인들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심한 좌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긍정적인 공생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은 일생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베토벤은 자기애적 결여(narcissistic deficit)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완벽한 대상을 원하였기 때문에 항상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¹²⁾

8. 질병

베토벤의 귀질환(난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진단명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다. 부검소견과 베토벤의 임상적인 증상들과 연결 지어 보면 가능성이 있는 진단은 ‘와우이경화증(Cochlear otosclerosis)’이다. 귓병 외에도 베토벤은 많은 신체적인 질환을 앓았다. 베토벤 자신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발견된다. “심한 설사병, 복통으로 고생하였다”, “가슴의 통증”, “내장이 망가졌다. 소화불량” 등의 메모들이다.¹³⁾ 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은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다.

12) Ciardiello JA(1985) : “Beethoven : Modern analytic views of the man and his music”, *Psychoanalysis*, Rev 72 : pp129-147.

13) Drake ME(1944) : “Deafness, dysesthesia, depression, diarrhea, dropsy, and death : The case for sarcoidosis and death”, *Neurology*, 44(9) : pp562-565.

융

1. 출생과 가족배경

융 집안의 조상들은 독일의 마인츠 지역이었고 의사이자 대학 총장인 존경받는 의학박사이자 법학박사 카를 융이 최초로 등장한다. 그의 손자인 프란츠 이그나츠(1759~1831)는 C.G. 융의 증조부로 융 집안을 이끌고 만하임으로 갔고, 부인 소피 융 치글러와의 사이에서 융의 조부 카를 구스타프 융 1세(1794~1864)가 태어난다. 카를 구스타프 융 1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다녔다. 조부는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한스포그타이 감옥에서 13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석방된 뒤에는 파리로 갔다. 파리에서 훔볼트를 만났고, 훔볼트의 추천으로 바젤 의과대학에 자리를 얻게 되었다. 카를 구스타프 융 1세는 1822년 바젤에 도착하여 이후 10년 동안 의대의 개혁에 앞장섰다. 그는 1828년 총장이 되었다. 대학행정가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지녀 바젤대학 의학부와 의료원을 크게 개혁하고 정신박약아의 양호시설도 짓고 또 정신병원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가장 선구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일은 1857년 정신적 결함이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인 희망원을 세운 것이다.¹⁴⁾ 융 조부의 첫째 부인 비르지니가 사망하고 그 후 시장 딸이었던 소피 프라이와 결혼하여 C.G. 융의 아버지인 요한 파울 아힐레스를 낳는다. 융의 외조부 자무엘 프라이스베르크는 주네브의 신교복음교회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구약과 신약을 가르쳤는데 후에 바젤 교구의 부름을 받아 목사직을 수행하였다. 외조부는 특이한 사고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항상 자신이 귀신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다고 믿었으며, 설교문을 쓸 때에 귀신이 뒤에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딸(융의 어머니)을 자신의 등 뒤에 앉혀 놓았다고 전한다. 융의 외조부의 두 번째 부인인 아우구스타 파버(1805~1862)는 이 가족에 신비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음으로 <제1인격과 제2인격>에 대해 말한 사람이었다. 융은 훗날 제1인격을 의식적 또는 관습적인 인격, 즉 <무해하고 인간적인>인격으로, 제2인격은 '기괴하고...예측 불가능하고, 무시무시한'인격으로 묘사했다. 아우구스타 파버의 경우 그녀의 두 인격은 '좋은 수사(修士)'와 '나쁜 수사(修士)'로 상징되는데 이 두 수사가 자신이 어디를 가던 따라다닌다고 주장

14) Bair D(2003) : 《Jung- A Biography, 정영목(역 2008)》, 주식회사 열린책들, 서울, pp27-36.

했다. 그녀는 외손자 C.G. 융의 집단무의식, 즉 무의식 가운데 ‘개인적’이고 특정한 것이 아니라 ‘심리의 어디에나 존재하고, 변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특질’을 이루는 부분과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티스테스 자무엘 프라이스베르크는 매주 특정한 시간에 서재에 들어가 전 부인 마그달레나의 유령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타 파버는 분을 참지 못했다. 자무엘은 책을 읽거나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딸을 하나 등 뒤에 두고 유령을 쫓도록 하였는데 이 일을 주로 후에 융의 어머니가 된 에밀리에게 맡겼다.¹⁵⁾

융의 아버지 파울 융은 대학에서 고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공부하여 구약성서 ‘아가’에 대한 논문으로 문헌학 철학박사가 되고 후에 목사의 길을 걸었다. 그 후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여 10세기학자 예페트 벤 엘 리가 솔로몬의 아가(雅歌)에 붙인 히브리어 주석을 다룬 학위논문을 썼다. 융의 아버지 파울은 결혼할 당시 외딴 마을 케스빌에서 스위스 복음주의 개혁신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었다.

융의 어머니 에밀리 프라이스베르크는 바젤에서 폼 티크(vom Tieg)에 속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예리한 직관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한다. 아버지의 특이한 행동으로 에밀리도 특이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했고 1869년 4월 8일 스물한 살의 나이로 결혼하였다. 결혼식은 바젤의 성스러운 예배당인 뮌스터 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 신부의 아버지 자무엘 프라이스베르크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 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의 신랑 요한 파울 아힐레스 융은 스물일곱 살이었다. 융의 부모는 각자 부모의 열세 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다.¹⁶⁾

어머니 에밀리는 자신의 유령에 대한 자신의 아버지의 특이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환상 경험이 가족의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¹⁷⁾

세 번의 유산 끝에 4번째로 융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융은 할아버지 카를 구스타프 융 1세의 이름을 따서 카를 구스타프 융 2세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카를이라는 이름의 철자만 Carl에서 Karl로 바꾸었다. 어머니 에밀리는 아이가 살아서

15) Bair D(2003) : 앞의 책, pp38-40.

16) Bair D(2003) : 앞의 책, p28.

17) Bair D(2003) : 앞의 책, pp41-43.

나왔다는 사실에 놀란 나머지 이름 따위에는 크게 관심도 없었다. 아이가 살아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아기 융 카를이 죽지 않을 것이라 사실이 분명해지자 부모는 긴장이 풀려 아기에게 아예 무관심해졌으며, 예전처럼 냉담해졌다. 에밀리는 점차 자신의 방에만 머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교구의 몇몇 여자들한테 목사관 복도를 떠도는 유령이나 귀신 이야기를 할 때, 또는 그들에게서 마을과 호수 사이의 좁은 길을 떠도는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것 같았다.¹⁸⁾

2. 융의 어린 시절(유소년시절)

융이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파울은 경치도 좋고 대우도 나은 라우펜 교구에 자리를 얻었다. 이사를 하면서 에밀리는 오히려 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에밀리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하녀는 몇 주씩이나 계속해서 융을 혼자 돌보곤 했다.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 안 전체에 찌렁찌렁 울렸기 때문에 융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¹⁹⁾

그 무렵 에밀리는 갑자기 목사관을 떠나 바젤 근처 요양소에 가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후에도 이런 일은 몇 차례 되풀이되었다. 어린 융에게 아버지는 신력성과 무력함이라는 두 가지 감정과 동어가 되었다. 라우펜에서 융은 보통 혼자 놀았다. 마을의 부모들이 아주 독특한 부모를 둔 모한 아이와 자기 자식이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바깥에 놀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융은 상상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했다. 융은 꿈과 백일몽을 이용해 자신만의 은밀한 놀이와 의식을 만들곤 했다. 파울은 책을 읽어 주고 이야기를 해주어 카를의 외로움을 달래 주려 했다. 이 이야기들은 주로 구약에 나오는 것이었으며 영웅, 행동, 모험에 집중되었다. 어린 융은 보통 혼자 알아서 놀았다.²⁰⁾

1881년 여섯 살이 된 융은 마을 학교에 입학했다. 파울은 융이 네 살 때부터 개인적으로 라틴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융은 학교에서 라틴어 구절을 읊조리는 것을 좋아했다. 융은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²¹⁾ 1884년 7월 17일에 어머니가 딸 요한나 레르트루트를 낳자 융은 충격을 받았다. 융은

18) Bair D(2003) : 앞의 책, p51.

19) Bair D(2003) : 앞의 책, p52.

20) Bair D(2003) : 앞의 책, pp54-56.

21) Bair D(2003) : 앞의 책, p61.

생물학과 식물학에 거의 강박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으며 그의 주된 관심사는 철학이었다. 누이는 트루디라고 불렀는데 트루디가 태어난 후 1년동안 어머니는 지나치게 돌보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못대게 했다. 에밀리는 트루디를 낳은 뒤 성격이 훨씬 나아졌다.²²⁾

3. 청소년기

융은 열한 살 때 바젤의 후마니스티세스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성서와 라틴어에 우수한 학생이었다. 반 아이들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융은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고 독일어는 억세고 투박한 바젤 방언을 써서 반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융은 늘 친구들과 싸웠고 말다툼이나 주먹다짐도 자주 하였다. 교사들은 늘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꾸짖거나 벌을 주었다. 독일어 교사에게 에세이를 표절했다고(실제로는 온전히 융이 쓴 것이었다)야단을 맞기도 했다. 어른이 되어 융은 재능 있는 화가가 되었음에도 이때는 교사들은 융이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그림 수업에서 빼버리기도 하였다.²³⁾

융의 학창 시절 그의 아버지가 프리트마트라고도 알려진 바젤 대학 정신병원의 목사 겸 상담자로 임명되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흥시켰던 대학병원의 똑같은 병동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파울은 금방 정신병과 정신장애 전문목사로 알려졌다. 그는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들에게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병원에서 하는 일이 곧 종교적인 일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파울 융의 정신치료나 관련 문헌에 대한 관심은, 그가 이 무렵 겪었던 신앙의 위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듯하다.²⁴⁾

융이 김나지움에서 첫해를 마무리하기 직전 함께 집에 걸어가곤 하던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가 미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다. 융은 머리를 세계 부딪히는 바람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후 여섯 달 동안 융은 집에서 혼자 놀이를 하거나, 백일몽을 꾸거나, 아버지서재에서 책을 읽는 생활을 하며 만족스럽게 지냈다. 그의 놀이는 대개 폭력적이었다. 전쟁과 약탈, 참화와 강탈의 이미지가 가득했다. 그는 전보다 더 내향적이 되었고 말도 더 없어졌다. 그 후 융은 몇 차례 머리가 어쩔해지면서 정신을 잃을 뻔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신의

22) Bair D(2003) : 앞의 책, p62.

23) Bair D(2003) : 앞의 책, pp65-66.

24) Bair D(2003) : 앞의 책, p76.

의지로 극복했다. 몇 주 뒤 용은 학교로 돌아갔고 두 번 다시 정신을 잃지 않았다. 어른이 된 후 용은 회고록²⁵⁾에서 이 경험을 통해 신경증에 관해 배웠다고 말했다. 이 시절 용은 니체, 괴테, 실러, 셰익스피어, 훔볼트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공부에 몰두하고 급우들의 인기도 얻은 용은 평화롭게 나머지 김나지움 시절을 보냈다. 13학년 어느 날 아침 용은 자신의 내부에서 어머니가 보여 준 제1인격과 제2인격을 자기 나뉘므로 경험했다. 제1인격은 무력하고 무능한 반면 제2인격은 힘과 영향력이 있었다.²⁶⁾

용은 카이사르, 키케로, 베풀람의 베이컨을 비롯한 라틴어 문학을 매주 8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리스어도 배웠다. 용이 열다섯이 되자 가정 내에서 그의 장래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용은 역사가나 문헌학자, 특히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의사가 되기로 최종 결정했다. 파울은 용을 바젤 대학에 보내면서도 관리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청구해야 했다. 에밀리의 제2인격이 앞으로 나서면서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한 환상들을 자주 보았다. 그녀가 영매로서 내놓는 기괴한 예언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4. 대학시절

1896년 21세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는 더욱 더 어려워져 용은 골동품점에서 물건을 팔거나 백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부를 계속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나 용은 대학시절을 아름다운 시절로 회상하고 있다. 당대의 사상가들을 섭렵하고 독서를 많이 했다. 부르크하르트, 바하오펜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²⁷⁾ 아버지의 부감목인 신학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교부학과 도그마의 역사를 배우고, 개신교 신학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하르트만에 관심을 보이고 일시적으로 니체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짜라투스트라>를 읽고는 실망하고 오히려 멀리하게 된다. 1900년 25세에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였다. 용은 크라프트 에빙(Kraft Ebing)의 정신과 교과서를 접한 후에 크게 감동을 받아 정신과를 택하게 된다.

1895년부터 1897년까지 2년간 용은 의학 준비과정을 이수하며 해부학과 생

25) 아니엘라 야훼(1961) : <<C.G.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이부영역, 집문당, 서울, 1990, p43.

26) Bair D(2003) : 앞의 책, pp68-70.

27)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117.

리학에 집중했다. 또한 신학, 문화인류학, 비교종교학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파울이 죽은 뒤 융 집안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에밀리가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가장 다급한 문제는 어디에서 살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파울의 장례식 후 일주일 안에 새로 올 목사를 위해 목사관을 비워 주어야 했다. 다행히 외삼촌 에두아르트가 거처를 마련해 주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융은 친삼촌 에른스트 융에게 정식으로 이자를 쳐서 값을 테니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꾸어 달라고 요청했다.²⁸⁾ 카를은 첫 2년 동안 의대생들을 위해 마련된 준비 과정인 프로페도이티쿰 1과 2에 등록했다. 커리큘럼의 핵심은 생물학과 해부학 일반강좌, 비교해부학 진화론이었으며 추상적인 토론을 즐겼다. 융은 정신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리하르트 폰크라프트 에빙을 꼽았다. 융은 학위를 받는 데 필요한 국가 고시를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은 교과서가 카라프트 에빙의 '정신의학 입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²⁹⁾ 1898년부터 1899년에 걸친 겨울 학기와 1900년 여름 학기에 그는 주로 정신 의학자인 루트비히 빌레(1834~1912)교수 밑에서 공부했다. 1900년 9월 28일 융은 최종 의사 시험을 통과했다. 그 후 융은 바젤을 떠나 취리히로 가서 부르크휠츨리 정신병원의 오이겐 블로일러 박사문하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³⁰⁾

5. 정신의학

1900년 12월 융은 정신의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리히 대학 정신병원 [일명 부르크휠츨리(Burghölzli)라고도 불린다]의 오이겐 블로일러(Eugen Bleuler)교수의 차석 조수가 된다. 이 당시 융은 자신의 이름을 Karl에서 Carl로 바꾼다. 자신의 조부가 유명 인사였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³¹⁾ 융은 정신병의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진단을 붙이고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 않는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이트의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는 융에게 개별적인 증례를 이해하고 좀 더 깊고 넓게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융은 회고하고 있다. 1902년 학위 논문 '소위 심령

28) Bair D(2003) : 앞의 책, p88.

29) Bair D(2003) : 앞의 책, p90.

30) Bair D(2003) : 앞의 책, p92.

31) Bair D(2003) : 앞의 책, p106.

현상의 병리와 심리에 대하여'를 발표하는데 이 논문은 융이 전 생애에 걸쳐 추구했던 마음의 심층에 대한 관심의 첫 공식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³²⁾ 1902년 겨울학기동안 융은 파리의 살빼트리에르(Salpetriere) 정신병원의 피에르 자네(Pierre Janet)에게로 가서 정신병리학 연구를 하고 돌아왔다. 1903년 스위스 북부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의 한 기업인의 딸인 엠마 라우센바하(Emma Rauschenbach 1882~1955)와 결혼하여 후에 5남매를 두게 된다. 엠마가 재벌가의 딸로서 많은 재산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결혼 이후 융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같은 해에 프란츠 리클린(Franz Riklin)과 협동하여 단어연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시행하고 결과 무의식적인 콤플렉스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연구로 정신분석학설과 자신의 연구결과가 연관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1903~5년사이 융은 쾰히 대학 의학부 정신과에서 자원의로 근무하면서 '정상 및 병적 단어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1905년에는 쾰히 대학 의학부의 사강사가 되어 정신신경과에서 심리학을 강의한다. 같은 해에 브르크휠즐리의 상급의사가 되고 외래의 최면요법 강좌를 맡는다. 이 시기에 조발성 치매(Dementia praecox, 정신분열병)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07년 '조발성치매의 심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당시 프로이트의 학문은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었는데 블로일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에 대하여도 학문적인 입장에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던 진취적인 학자였다. 블로일러의 이러한 태도는 융의 연구의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융은 부르크휠즐리의 학문적인 분위기가 너무 진부하고 또 창조적이지 못하는 인상을 받고는 1909년 상급의사직을 사임하고 1913년 사강사직도 사임한다.³³⁾

6. 프로이트와의 만남³⁴⁾

융이 프로이트를 처음 접한 것은 1900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관한 논문을 블로일러의 세미나에서 발표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자신이 시행하던 연상실험의 결과가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후 프로이트에게 자신의 연구논문을 보내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였다. 1907년 융이 빈을 방문하면서 첫 대면이 이루어진다. 융은 프로이트의 학문태도, 즉 스스로 체험

32) 이부영(1998) : 앞의 책, p13.

33) 이부영(1998) : 앞의 책, p14.

34) 이부영(1998) : 앞의 책, pp14-17.

을 통하여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세,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통찰에 매료되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융은 1908년 쾰른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정신분석학회에 참석하고, 같은 해 퀴스나하트(Küsnacht)에 자택을 신축하기 시작한다. 1909년 융은 신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프로이트와 함께 미국의 클라크 대학에 초청되어 단어연상실험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910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정신분석학회대회에 참석하고 새로 결성된 국제정신분석협회의 회장이 된다. 1912년 ‘리비도의 변환과 제상장’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프로이트의 성욕설 또는 무의식에 대한 다른 태도로 인하여 1913년 결국 둘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융은 자신의 심리학을 분석심리학이라고 명명한다. 1914년 국제정신분석협회의 회장직을 사임한다.

7. 무의식과의 대면³⁵⁾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가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음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의식이 무엇인지 뚜렷한 개념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융은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쾰른 대학의 교수직도 사임한다. 융은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돌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는 환상을 적극적으로 실제화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대화를 글로 적어갔다. 융은 스스로 엘리야(Ellia)라 칭하는 노인과 살로메라는 소녀의 환상을 보게 된다. 그 뒤에 엘리야의 모습에서 좀 발전된 또 다른 노인상을 본다. 그 첫 출현은 황소의 뿔을 달고 날개를 가진 노인상으로 나왔는데 융은 그를 필레몬(Philemon)이라고 불렀다. 융은 필레몬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자아)와는 다른 우리 마음속의 타자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정신적인 객체성, 심혼(Seele)의 진실을 인식하도록 해주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것이 발전되어 나중에 ‘적극적 명상’이 된다. 1916년 ‘초월적 기능’이라는 논문에서 ‘적극적 명상’이 처음 기술이 되고, ‘무의식의 구조’라는 논문에서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 개성화 등 분석심리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논문은 나중에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수정, 보완된다. 1917년 ‘무의식의 과정에 대한 심리학’이 발표되고 후에 수정-보완되어 ‘무의식의 심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판된다. 1918~9년 사이 대위로 영국군 수용소의 의무실장으로 군복무를 한다. 같은 시기 논문 ‘본능과

35) 이부영(1998) : 앞의 책, pp17-19.

무의식'에서 '원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1913~1919년사이의 기간을 융 생애의 '내향기'라고 부른다. 1918년에는 영지주의학(gnosis)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융은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지하고 자신의 세계만을 탐구하는 시기였다. 융의 중요한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자신의 무의식이라는 현상이었다.

8. 연금술³⁶⁾

1928년부터 융은 증세에 꽃을 피우다가 합리주의적 사조에 밀려 거의 도외시되던 연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융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최고의 물질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던 연금술사들의 무의식적 과정이었다. 중국학자 리하르트 빌헬름과 같이 중국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의 한 경전에 심리학적 해석을 가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이 후 1944년 '심리학과 연금술', 1946년 '전이의 심리학', 1955년 '융합의 비의' 등의 저작으로 정리된다. 이 책들 속에서 융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론을 지양하고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 만년의 활동³⁷⁾

1933년 국제의학정신요법학회장, 1934~39년 사이 쾰른 심리학 클럽에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심리학적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영어세미나를 주관한다. 1935~42년 사이 스위스 연방공업대학에 분석심리학강좌개설, 영국의 타비스콧 기념강좌, 예일대학의 테리기념강좌, 1943년 스위스 아카데미 명예회원, 1944년 바젤대학 의학심리학 주임교수, 1945년 여러대학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등 많은 사회 활동이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항상 자신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1948년 체.게 융연구소(C.G.Jung Institute)가 설립되어 후진 양성을 하기 시작한다.

융은 자신의 사상을 에라노스라는 학술모임에서 많이 발표하였다. 이 모임은 영국태생의 스위스인 올가 후레베 부인이 1933년에 시작한 학술모임이다. 초기에는 동양과 서양의 전통사상이 서로 만나는 장이었으나 후에는 자연과학과 생물학, 종교, 신화, 그노시스, 심리학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다. 자유로운 사상의 교류가 핵심주제였다. 융은 1933년부터 1951년까지 총 14회 이곳에서 강연을 하였다. 1933년의 첫강연 '개성화 과정', 1935년 심리학과 연금술, 1940년 삼위일체

36) 이부영(1998) : 앞의 책, pp21-22.

37) 이부영(1998) : 앞의 책, pp22-24.

도그마의 심리학적 해석, 1941년 미사에 나타난 변환의 상징, 1945년 혼의 심리학, 1946년 정신본질의 이론적 고찰 등의 중요 강연이었다. 1950년 ‘무의식의 상징들’이 발표된다. 1951년 ‘Aion’이 발표된다. 이 후 융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물리학자 파울리와 함께 물질과 정신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비인과적 원리로서의 동시성에 관한 연구였다. 이 중 일부는 파울리와 함께 1951년도에 출간한 ‘자연해석과 정신’에 기술되어 있다. 1952년 ‘변환의 제상징’이 출간되고, 1953년에는 뉴욕에서 볼링겐 시리즈로 융전집의 영문판이 출판되기 시작한다. 1954년 79세의 나이로 ‘의식의 뿌리’를 발표한다. 1955년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서 명예자연과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융합의 비의’를 2권으로 출간한다. 이 해 11월 27일 부인이 사망한다. 1957년 자전적 체험기 ‘체.계 융의 추억, 꿈 사상’을 야훼 여사에게 구술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1961년 융의 서거 후 출판된다. 같은 해 ‘현재와 미래’가 발표된다. 1958년 ‘현대의 신화’가 발표되었고 1960년 융의 독어판 전집이 ‘정신치료의 실제’를 시작으로 출판되기 시작한다. 1961년 ‘무의식에서의 접근’을 영어로 탈고하고 이것은 후에 인간과 상징에 수록되었고,³⁸⁾ 그 해 6월 6일 짧은 와병 후에 영면에 든다.

마음의 구조와 기능³⁹⁾

1. 개요

분석심리학에서의 마음이 구조는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 의식의 중심에는 ‘나(Ich, Ego,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 ‘나(자아)’는 한편으로는 외계(external world)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계(internal world)와 관계를 맺는다. 집단이 개인에게 준 역할, 의무, 약속 등의 행동양식을 페르조나(Persona)라 이르는데, 외적 인격(external personality)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응하여 내적 인격(internal personality)이 존재하는데, 남성의 내적 마음을 아니마(Anima) 심혼(心魂), 여성의 내적 마음을 아니무스(Animus) 심령(心靈)라고 한다. 무의식은 다시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다. 개인적 무의식 중 ‘나(자아)’의 부분에 속하는 무의식 부분을 그림자

38) 이철(1986) : “C.G. Jung年譜”, 《심성연구》, 1(1) : pp91-100.

39) 이부영(1998) : 앞의 책 pp58-126를 요약한 것이다.

(Shadow, Schatten)라 부른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이면 서 동시에 집단적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또는 자기 자신(Self, Selbst)이다. 이것은 마음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분열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게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2. 자아와 의식

자아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자아 콤플렉스'라 이른다. 의식한다는 것은 특정 심리 내용이 자아 콤플렉스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유아기에는 모든 것이 무의식 상태에 있다. 가장 중요한 본능적인 기능들은 모두 무의식 상태에 있다. 4세경이 되면, 자아 감각, '나, 나 자신'이라는 것이 발달한다. 먼저 생겨나는 것은 자기 신체, 자기존재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이며 둘째로는 일련의 기억에 의하여 생겨난다. 그 후 사고, 감정, 감각 또는 직관 등의 정신의 기본적인 4 가지 기능도 의식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즉 의식은 무의식의 산물이다.

3. 무의식의 내용과 기능

무의식이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부분을 의미한다. 융은 무의식에는 두 가지 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개인적 무의식으로 이것은 특정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 생활에서의 내용 가운데 잊어버린 것 또는 의도적으로 억압한 괴로운 가정이나 생각 등으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는 집단적 무의식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을 이르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를 이른다.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즉 무의식은 의식에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그럼으로써 그 개체의 정신적인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

4. 그림자

'나'의 부분에 속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즉 그림자(Shadow, Schatten)이다. 즉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게 자리를 잡는다. 일반적으로 그림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무의식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때로는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인 원형(Archetype)의 상을 띠기도 한다. 개인적인 무의식의 내용이 투사가 될 때에는 그리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

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형으로서의 그림자가 투사될 때에는 형언할 수없는 두렵고 무서운 감정,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감,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체와 객체,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가 뚜렷하지 않은 유아기에는 그림자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나와 너, 선과 악 등을 구별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이와 병행하여 그림자도 짙어진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림자는 인격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외적 인격과 내적 인격

관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자신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각 개인의 특성을 외적 인격이라 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특성을 내적 인격이라 칭한다. 자아는 외부세계와 접촉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익히게 되는데 융은 이것을 외적 태도(external attitude) 또는 페르조나(Persona)라 하였다. 동시에 내부세계 즉 무의식에 적응하는 가운데 외적 태도에 대응하는 내적 태도가 생기고 이것을 마음(Seele)라고 하였다.

1) 페르조나(Persona)

페르조나란 집단정신의 한 단면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진정한 '자기'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생활을 할 때의 규범들이 이에 해당된다.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아는 자신도 모르게 집단정신에 동화되어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개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 자아가 페르조나와 동일시 되었다고 표현한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자아는 내적인 정신세계와는 단절된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은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하여 과보상(overcompensation)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아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 여러 가지의 정신증상이 야기되는 것이다.

2) 아니마 Anima, 아니무스 Animus

자아의 무의식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아니마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인 요소를 이르며,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인 요소를 이른다. 아니마란 남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경험의 총화이며, 아니무스란 여성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모든 경험의 총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결과 남성에

서의 아니마는 '기분, 정동'으로 나타나고 아니무스는 '생각, 의견'으로 표현된다.

6. 원형론

원형(Archetype)이란 인간이면 누구의 정신이나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이고도 근원적인 마음의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인간의 선형적 조건으로 시간과 공간,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성의 조건이다. 이러한 원형들이 모여서 집단적 무의식을 이룬다. 이러한 원형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견된다. 첫째는 일반인들의 꿈에서 관찰된다. '악몽', '황홀한 감동적인 꿈', '충격적인 꿈'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신화의 세계, 민속 신앙, 원시종교에서 나타난다. 셋째로 고등종교의 교리나 의식에서 넷째로는 문학, 예술 작품에서 나타난다. 다섯째는 정신질환자들의 정신병리에서 나타나며 여섯째로 종교에서의 방언 등 신비체험에서, 일곱 번째로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들, '초인', '타잔', '킹콩' 등에서 관찰된다.

7. 자기와 자기실현

1) 자기원형

자기(Self, Selbst)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통합된 전체를 뜻한다. 자기원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리된 가치가 통합되어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은 이미 원초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조건 지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는 상징을 통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다라이다. 융 자신은 1916년 처음으로 '만다라'의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그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융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한 의미의 형성-재형성, 영원한 대화 바로 이것이 자기이며 인격의 전일성이며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은 조화를 이루나 결코 자기기만을 참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원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느꼈다. 그는 '내가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걸어간 길, 그 모든 발자취,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의 점, 즉 중앙에 귀착함을 보았다. 즉 개성화예의 길이다'라고 하였다.

2) 자기실현

자기원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하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 가능성이라면 자기실현은 이러한 가능성을 자아의식이 받아들

여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행위를 이른다.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집단정신과 나의 삶의 목표를 구별하는데 있다. 집단정신 즉 페르조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무의식을 의식화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완전한 자기실현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무의식이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는 '완전성'이 아니라 완전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토벤과 융의 삶과 발달과정은 많은 유사성이 있다.

첫째, 조상 및 가족환경이다. 베토벤과 융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유전적인 소인은 타고 났다고 볼 수 있다. 베토벤인 경우, 조부와 아버지가 성악가로 활동한 사실은 베토벤이 태어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우수하게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융의 조부 카를 구스타프 융 1세는 1828년 바젤 대학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되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바젤에서 최초로 정신박약아의 양호시설도 짓고 또 정신병원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가 평생 추진한 의학 관련 사업 가운데 선구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일은 1857년 정신적 결함이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인 희망원을 세운 것이다. 융이 정신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환경적 또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영향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기 교육적인 면이다. 베토벤이 어렸을 때부터,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으로 베토벤의 조기 교육을 시킨 것이 또한 베토벤의 음악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융의 아버지 또한 융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 주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런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은 부정적인 면이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베토벤을 가르쳤으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에 베토벤은 아버지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이 말년에는 알코올 중독증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베토벤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 융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관에 대하여는 용이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토의를 할 때에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종교적인 회의를 지니고 있으면서 목회 일을 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항상 연민의 마음을 용은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베토벤과 용은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4~5년동안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사별로 아주 우울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베토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하였다. 용 또한 어머니의 비합리적인 태도로 인하여 상당히 혼란된 어머니상을 지닌 상태로 성장하였으며,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이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잦은 입원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분리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였다. 아마도 용의 어머니는 심한 반복적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셋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로 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텐, 파이퍼, 로바티니, 리스, 네페, 쉥크, 알브레흐츠버거, 살리에르, 드라고네티, 모차르트, 하이든 등 베토벤의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그 당시의 훌륭한 음악선생님들로부터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것은 일반 사람들의 자세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용 또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었다. 크라프트 에빙,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프로이트, 블로일러, 자네, 포겔, 무랄트, 하인리히 짐머, 리하르트 빌헬름, 등 다양한 분야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넷째, 베토벤과 용 모두 독서광이었다. 베토벤 시대 당시 칸트와 헤겔의 철학 사상이 꽃을 피웠고 괴테, 실러, 워드워즈, 바이런, 유고, 키츠, 푸쉬킨 등 불멸의 명작과 시를 남긴 많은 문학가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시대였다. 베토벤은 이들의 작품에 크게 매료된다.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피테르, 호머의 작품을 탐독하였다. 그리이스-로마 신화, 이집트신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힌두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에 대한 독서도 열심히 하였다. 용 또한 독서광이었다. 바흐오펜,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괴테, 실러, 셰익스피어, 카이사르, 키케로, 베이컨, 훔볼트, 그리스-로마 신화, 이상심리학, 티베트의 밀교, 선에 관한 서적들, 파라셀수스의 저서들, 노자의 도덕경, 역경, 기독교신비

주의, 인도사상 등에 관한 서적들을 읽는다. 이런 독서를 통하여 베토벤, 융 모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분야에서 혁명적인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

다섯째, 부단한 노력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다. 베토벤은 정규 교육의 과정이 초등학교 과정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대학의 철학과에 청강생으로 등록하여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보충하려는 노력을 이미 청소년기에 시도하였다. 비엔나 유학시에도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자세를 지녔다. 자신이 작곡한 곡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판을 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끊임없이 고치고 이렇게 하여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곡 자체를 새로 작곡하는 강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융 또한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학문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융 자신의 말대로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인격 또한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전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게 된다”. 꿈과 명상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즉 융의 인생이며 학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베토벤과 융 모두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질병을 앓았고 이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보다 성숙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베토벤인 경우, 양극성 장애라는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정서태가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각종 신체적인 질환을 많이 앓았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청력장애”인데 베토벤의 청력 장애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베토벤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베토벤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소견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 후에도 2차례에 걸쳐 부검이 시행되었으나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토벤은 많은 신체적인 질환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다. 천연두, 궤양성 대장염, 기관지염, 류마치스성 관절염, 통풍 등으로 추정되는 질환들이다. 사망 원인은 간경화증으로 추정된다. 생의 마지막 6개월은 투병생활을 하느라 작곡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 당시 출판된 헨델 악보의 총서를 가지고 지속적인 공부를 하였다. 융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하였다. 어렸을 때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어머니의 반복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어머니와의 분리를 자주 경험하였다. 어린 시절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었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이

나 교사로부터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친구들로부터는 폭행을 당하여 기절 발작증상을 일으켜 학교를 쉬기도 하였고 또한 청소년 시절 급우들과의 사회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앞서가는 용의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여 용의 숙제를 표절한 듯이 언급하여 용은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친구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용은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상당부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점을 찾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성숙할 수 있었다.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업적은 이것은 한마디로 대극의 합일(Gegensatzvereinigu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베토벤 음악의 대극의 합일사상

첫째, 베토벤은 “성악과 기악”이라는 대극적인 관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베토벤 이전의 모든 작곡가들은 “성악과 기악”이라는 대극적인 모델로 작곡에 임하였다. 즉 성악을 위한 곡과 기악을 위한 곡은 서로 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베토벤은 ‘제9번 교향곡’에서 마지막 4악장에 “합창”을 포함시킴으로써 성악과 기악을 하나로 통괄하고 있다. 1808년도에 작곡된 ‘피아노와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작품번호 80번)’에서도 기악과 성악의 통합을 시도하는데 이 곡은 9번 교향곡을 쓰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교향곡은 실러의 송가 ‘환희에 부쳐’를 끝악장으로 한 곡이다. 1823년 이 곡이 작곡되기 전 해에 <장엄미사>를 완성함으로써 베토벤은 내적인 평화를 성취하였고, 그 이듬해 이 교향곡을 완성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다. 비단 성악과 기악의 합일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합일을 통하여 대극의 합일을 성취하고 있다. “성악과 기악을 통틀어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곡” 이 한마디로 이 곡이 갖는 음악사적 가치는 충분히 표현될 듯하다. 로망 롤랑은 이 곡에 대하여 “합창이 관현악에 종속되지 않고 또한 관현악이 합창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기악과 성악이 혼연일체가 되는 곡”이라고 표현 한 바 있다.⁴⁰⁾

40) 조수철(1997) : “Beethoven의 아홉 交響曲들- 發達學的 觀點-”, 《精神醫學》, 22(1) : p32.

둘째, 베토벤은 “강함(強)과 부드러움(柔)”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교향곡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베토벤은 모두 9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였다. 이 중 홀수번호(1, 3, 5, 7, 9번)는 강렬하고 남성적인 곡들이며, 짝수번호(2, 4, 6, 8번)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곡들이다. 전체 9곡의 교향곡들에서 “強과 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고 있다.⁴¹⁾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로운 성취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이며 인류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가치이기도 하다. 한 인간의 내부에서도 부드러움이 중요하고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다.

셋째, 베토벤은 “투쟁(鬪爭)과 평화(平和)”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전형적인 예가 ‘제5번 운명 교향곡’과 ‘제6번 전원 교향곡’이다. 제5번 운명 교향곡은 “가혹한 운명과의 처절한 투쟁, 이 투쟁 끝에 이끌어내는 인간승리”를 그리고 있는 곡이다. 그러나 제 6번 전원 교향곡은 “자연에 순응하며 더불어 사는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 이에서 느끼는 환희, 자연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 두 곡은 거의 동시에 작곡된 곡들이다. 투쟁과 평화라는 대극적인 가치가 베토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후기 현악4중주곡들에서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현악4중주곡 제12번은 밝고 명랑하고 행복감을 나타내는 곡이며, 제15번은 슬픔,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지만, 중기의 작품들처럼 환희에 찬 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제3악장은 ‘병에서 회복한 사람이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성가’라는 노트를 남겨 베토벤의 이러한 심경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14번에 대하여는 바그너는 ‘그 고요함이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음악’이라고 평한 바 있다. 제16번의 3악장에서는 ‘휴식과 평화를 위한 달콤한 노래’라고 적었던 듯이, 베토벤의 마음이 극도로 평온하고 깊은 바다처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슬픔, 고난, 고통 등의 정서도 표현이 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일어난다.⁴²⁾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초기 또는 중기에는 “운명은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격렬함, 불같은 정열 등”으로 대적하여 싸우면서 승리를 이끌어 내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후기에 와서는 “슬픔과 기쁨”,

41) 조수철(1997) : “Beethoven의 아홉 交響曲들-發達學的 觀點-”, 《精神醫學》, 22(1) : p33.

42) 조수철(1997) : “Beethoven의 후기 현악4중주곡-인격적 발달과 음악적 표현과의 관계-”, 《精神醫學》, 22(1) : pp91-95.

“사랑과 미움”, “고난과 환희” 등등 대립적인 개념들이 “하나” 내지는 “하나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인격적인 성숙함이란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평화로움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서 희노애락 등의 감정의 변화가 없어야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따라서 베토벤의 후기의 현악4중주곡들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함은 베토벤이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상태에서 작곡되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넷째, 베토벤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는 제6번 교향곡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원 교향곡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을 절묘하게 그리고 있다. 자연이란 “스스로 그리함”이라는 의미이다. 베토벤은 항상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베토벤은 항상 자연에서 신성함, 거룩함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자연 전체는 일체의 사물을 대립과 투쟁을 넘어 하나로 통합하려는 열려진 영역이며 베토벤은 자연 속에서 투쟁과 대립, 통일과 통합을 이루려고 하였다. 예술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원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이다. 베토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섯째, 베토벤은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베토벤은 초기시절부터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조화로움은 부조화로움이 존재해야지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피아노 소나타에서의 불협화음은 특히 중기의 대표적인 소나타에서 흔히 관찰된다. 피아노 소나타 제17번(템페스트)의 전 악장, 피아노 소나타 제21번(발트스타인), 피아노 소나타 제23번(열정 소나타)의 전 악장에서 강력한 불협화음들이 나타난다.⁴³⁾ 현악4중주곡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관찰되는데, 특히 후기 현악4중주곡들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현악4중주곡 제 12번(Op.127)의 전 악장, 현악4중주곡 제14번(Op.131), 현악4중주곡 제 15번(Op.132)의 제1악장, 3악장, 4악장, 현악4중주곡 제16번(Op.135)의 1악장, 3악장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4악장은 거의 전 악장이 불협화음으로 되어 있다.⁴⁴⁾ 피아노 3중주곡 제3번

43) 조수철(2005) : “베토벤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발달학적 측면” : 미발표된 자료.

44) 조수철(1997) : “Beethoven의 후기 현악4중주곡-인격적 발달과 음악적 표현과의 관계-”, 《精神醫學》, 22(1) : pp87-95.

(Op.1의 No3)의 1악장, 2악장에서도 당당하게 불협화음을 사용하고 있다. 피아노 3중주곡 제5번(Op.70-1 일명 유령)의 2악장에서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피아노 3중주곡 제7번(Op.97 일명 대공)에서는 1악장에서 베토벤은 일상적으로 불협화음을 쓰기 전에 예고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처음 도입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2악장, 3악장에서도 불협화음이 나타난다. 악(惡)이 없으면 선(善)이 존재할 수 없고, 추(醜)가 없으면 미(美)가 힘을 발휘할 없고, 천(賤)이 없으면 귀(貴)가 의미가 없고, 후(後)가 없으면 전(前)이 존재할 수 없고, 저(低)가 없으면 고(高)가 없고, 예(穢)가 없으면 정(淨)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음(陰)이 없으면 양(陽)이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너무나 흡사하다.⁴⁵⁾ 마찬가지로 협화음과 불협화음은 서로 상반된 개념인 듯하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베토벤에 의하여 소리라는 형태를 빌려서 완벽하게 대극의 합일사상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시와 음악”의 합일이다.⁴⁶⁾ 베토벤에 이르러 시와 음악은 하나가 된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애인에게(An die ferne Geliebte, Op.98, 1816)’는 시인 자이텔레스의 6개의 시를 주제로 하여 작곡한 곡으로 성악의 역사에서 최초의 연가곡으로 인정되는 곡이다. 이 연가 곡 형식은 후에 이어지는 슈베르트에 의하여 3대 연가곡집 즉 ‘겨울나그네’, ‘아름다운 물방앗간 처녀’, ‘백조의 노래’로 꽃을 피우게 되고 슈만에 의하여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 낭만적인 형식의 연가곡으로 발전한다. 이어 말러에 이르러서는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자식을 그리는 노래’ 등 방랑, 삶과 죽음 등 철학적인 연가곡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외에도 괴테의 시를 주제로 칸타타 ‘조용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Op. 112’를 작곡하였으며, 괴테에 의한 3개의 노래, Op.83, 6개의 노래 Op.75 그리움(WoO 134) 등도 작곡하였다. 또한 켈레르트에 의한 6개의 노래 Op.48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낭만주의에 와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되어 시와 문학 그리고 음악이 하나가 되는데 이의 기본적인 틀을 베토벤이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베토벤은 “聖과 俗”을 하나로 통합하였다.⁴⁷⁾

45) 조수철(1996) : “絶對의 意味와 省察”, 《신경정신의학》, 35(1) : pp204-211.

46) 조수철(2010) : 《음악, 인간을 연주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p142-145.

47) 조수철(2007) : 《베토벤-그 거룩한 올림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pp199-200.

베토벤은 종교음악을 그리 많이 작곡하지 않았다. 중기의 C장조 미사곡(Op. 86, 1807), 후기의 장엄미사곡 D장조(Op. 123, 124),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Op. 85, 1803)가 있을 뿐이다. 특히 후기의 ‘장엄미사곡’을 작곡할 때 베토벤은 자신의 친구들을 통하여 비엔나의 모든 도서관에서 과거에 작곡된 미사곡의 악보를 전부 수집하고 이를 열심히 탐구하였다. 그런 후에 장엄미사곡의 작곡에 착수하였는데 이 곡의 상당부분은 세속적인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토벤 이전의 음악가들은 ‘종교와 세속’을 대극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작곡하였다. 그러나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세속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이 없는 종교란 존재할 수 없고 종교가 없는 세속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聖**과 **俗**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Op. 85, 1803), 미사 C 장조(Op. 86, 1807) 역시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덟째, 베토벤은 “전통과 개혁”을 하나로 통합하였다.⁴⁸⁾ 그러나 베토벤은 전통(보수)적 가치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교향곡 또는 후기 피아노 소나타 또는 ‘후기 현악4중주곡’들이다. 교향곡에 있어서는 3번부터 7번까지 엄청난 개혁을 시도하다가 8번 교향곡에 이르러서는 다시 하이든의 모델로 회귀한다. 그 후 12년 동안의 긴 준비기간을 거친 후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곡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 현악4중주곡’들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이 곡들에서 한 악장은 반드시 모차르트나 하이든 풍의 악장으로 작곡하였던 것이다.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전통을 중요시한 베토벤의 ‘대극의 합일사상’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다.

마지막으로 베토벤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통합하였다.⁴⁹⁾

베토벤이 일생동안 가장 애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구한 주제는 “영웅주제”였다. 1790년도에 작곡한 ‘요세프 2세 죽음에 즈음한 칸타타(WoO 87)’에서 베토벤의 영웅주의가 시작된다. 이 곡에 대하여는 악보상의 어려움 때문에 연주가 어렵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글루크, 모차르트, 또는 라모 등 선배음악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곡은 이 곡의 수많은 모티브, 경과구 그

48) 조수철(2007) : 앞의 책, pp201-202.

49) 조수철(2007) : 앞의 책, pp202-207.

리고 극적인 악상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중기의 교향곡(제3, 6, 7교향곡들), 감람산의 그리스도, 코리올란서곡, 에그몬트 서곡, 피델리오, 제29번 피아노 소나타, 장엄미사, 제9번 교향곡의 뿌리가 되는 곡이 바로 이 곡이라는 점에서 이 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영웅주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회 모든 종족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주제로서 인간 심성의 원형(Archetype)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주제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탄생(Birth)-죽음(Death)-재생(Rebirth)의 3구조이다. 즉 영웅이란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상징적 의미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부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는 존재를 이른다. 즉, 보편타당한 가치를 위하여 스스로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는 존재가 영웅이다. 베토벤인 경우 실제 자신의 실질적인 체험(1802년의 하이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이름)을 통하여 거듭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즉 베토벤 자신의 삶 자체가 영웅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작곡 분야에 있어서는 제 3번 영웅교향곡이 대표적이다. 이 교향곡은 제1악장이 ‘영웅의 탄생’, 제2악장-영웅의 죽음(장송행진곡), 제3악장-영웅부활의 준비단계, 제4악장-영웅의 부활, 재생의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곡들을 통하여 베토벤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극적인 대극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을 작곡하게 된 배경은 영웅주제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 속 깊이 존재하는 인간 심성의 원형이 음악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표현 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베토벤은 동양사상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융의 핵심사상도 이와 유사하다.

첫째, 융의 학문의 발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모두 통합이 되고 있다. 융은 인간정신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학, 예술작품, 철학사조,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헤라클리트, 엠페도클라스, 플라톤, 마이스터 엑하르트(Meister Eckhart), 헤겔, 쇼펜하우어, 칸트, 종교적 현상, 인류학, 이상심리학, 영지학파(Gnosis) 도승의 체험세계, 동방의 지혜, 인도의 요가, 노자의 철학, 티벳의 밀교, 선(禪), 파라셀수스의 경험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등 모든 사상들이 그의 사상에 융합되어 있다. 통섭적 접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융은 대학시절 자연과학, 역사, 철학, 고고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당대의 사상가들

50) 조수철(2002) :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pp229-240.

을 섭렵하고 독서를 많이 했다. 부르크하르트, 바하오펜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신학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교부학과 도그마의 역사를 배우고 개신교 신학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생물학과 해부학 일반강좌, 비교해부학 진화론, 신학, 문화인류학, 비교종교학, 즉 강신술이나 종교 이론 탐구, 문학, 신비주의적 문헌, 강령술, 초심리학적 실험 등이 모두 융의 심리학에 통합되어 하나를 이루고 있다.⁵¹⁾

둘째, 자연과의 합일사상이다. 청소년시절부터 융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항상 홀로 있으면서 자연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 자연은 융에게 있어서 경이로움을 야기 시키는 존재였으며, 융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심화(深化)시킬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⁵²⁾ 돌 하나, 식물 하나, 모두가 생명에 찬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융은 항상 자연 속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자연의 본질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융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였다.

셋째, 심리학과 물리학의 합일이다. 융이 저서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을 낸 이래 줄곧 깊이 관심을 두어온 학문적 주제는 리비도의 이론이었다. 융은 리비도를 물리적 에너지의 류비(類比)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리비도를 비교적 양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고 리비도에 관한 모든 질적인 본질규정을 배격했다. 이는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전력, 빛, 열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 만약 리비도를 에너지로 본다면 총체적이고도 통일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리비도의 성질에 관한 질적인 질문 그것이 성(性)이나, 권력이나, 배고픔이나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융이 심리학을 위해서 하고자 한 것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에너지론이 성립되듯 그러한 통일성을 심리학에서도 형성하는 것이었다. 융이 저서 ‘정신적 에너지에 대하여’(1928)⁵³⁾에서 추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 즉 융은 인간의 충동을 에너지 과정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보며 열, 빛 등과 같은 종류의 힘으로 보고 있다. 융은 1930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볼프강 에른스트 파울리(1900~1958)와 그런 식으로 심리학과 관계없는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파울리는 1923년부터 1929년까지 배제 원리를 밝혀내 이론적인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일반

51) Bair D(2003) : 앞의 책, pp73-75.

52)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45.

53)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237.

양자 장이론을 연구하면서 명성도 얻었다. 파울리는 1928년에 스물여덟의 나이로 취리히의 스위스 연방 과학기술 전문대학의 이론물리학 교수가 되었다. 파울리는 낮 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밤의 꿈 때문에 융의 상담을 받는다. 파울리는 몇 년 동안 꿈을 기록하여 총 1천 3백개 이상을 모아 놓았다. 융은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45개만 연구했으며, 나중에 ‘연금술과 관련된 개인 꿈의 상징’을 쓸 때 이 가운데 일부를 집어넣었다. 파울리는 1932년에는 매주 월요일 정오에 융을 만나 꿈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공식 분석이라기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둘러싼 허물없는 대화에 가까웠다. 이후 26년 동안 두 사람은 직접 만나거나 편지로 파울리의 꿈을 이야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물리학자와 심리학자 사이만이 아니라 물리학과 심리학 사이에 특별한 지적 결합’을 이루어 냈다.⁵⁴⁾

넷째, 시간과 공간의 합일 내지는 초월이다. 이에는 문학과 예술과의 합일, 종교와의 합일, 동시성과의 합일, 심령심리학과의 합일, 원시사회와의 합일 등이 포함된다.

첫째, 분석심리학에서는 그림분석의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피분석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또한 융은 그의 많은 저서에서 문예작품들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괴테의 파우스트, 뢰팅린의 시 등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적 과정의 과학으로서 심리학이 문학이나 예술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고 융은 말한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모든 과학의 어머니인 동시에 모든 예술작품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의 형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적으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소재가 다루어지고 작품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작가는 창조과정과 하나가 된다. 쉴러의 시나 희곡은 소재에 대한 이러한 내향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괴테의 파우스트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소재에 대한 외향적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을 쓰기 보다는 그의 의도에 반해 창조적 관념이 작가로 하여금 그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우로 보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 융은 예술적 창조성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개인적인 무의식도 포함되지만 집단적인 무의식을 구성하는 원형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⁵⁵⁾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고전문학이나 예술

54) Bair D(2003) : 앞의 책, pp978-980.

55) 이부영(1998) : 앞의 책, pp299-300.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런 작품들이 인간심성의 원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예술가들의 개인적인 삶이 그리 행복하지 못한 것은 창조적인 것이 예술가 속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힘으로는 현실적응능력의 발전에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욕망은 희생되기가 쉽다. 예술가의 생은 오로지 그의 예술로써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비인과론적 동시성개념과 관련이다.⁵⁶⁾ 비인과론적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인과원리와는 달리 2개 혹은 그 이상의 사건들이 비인과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여 같은 혹은 유사한 의미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동시성 현상은 두 가지 요소로서 성립된다. 하나는 무의식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꿈이나 착상 또는 예감으로 의식에 나타나는 것, 둘째 이 내용과 일치된 객관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동시성 현상은 아마도 무의식의 독특한 기능과 관련될 것이라고 융은 생각하였다. 무의식에는 의식의 제약된 시간, 공간조건을 초월하여 이를 상대화시키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집단적 무의식은 의식보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의식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지각할 수 있다. 융은 무의식이 어떤 선형적 앎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절대지라고 명명하고 있다.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지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합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되는 꿈이 어머니의 실제적인 죽음과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던가, 텔레파시나 천리안 등 초감각적 지각 등이다. 비인과적 동시성 사고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심령현상 뿐만 아니라 인간 및 세계현상 일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고이다. 융의 이러한 사고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와의 합일사상이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종교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가장 근원적인 인간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류의 근원적이고도 보편적인 집단적 무의식의 층이 바로 종교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기능은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다. 즉 인간 정신의 심층에서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융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자기원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반기독

56) 이부영(1998) : 앞의 책, pp313-315.

(Antichrist)은 자기의 그림자에 해당된다. 그리스도는 전일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현상으로도 전일(全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의 자기실현이란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현이다. 기독교에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의식 너머에 존재하던 자기원형의 의식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실현이 그리스도 원형에 자아를 무턱대고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일이란 내가 내안의 모든 것을 합쳐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원시종교에서도 합일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샤만은 원시종족의 의사인 동시에 영혼의 인도자였다. 샤만은 태어남과 고통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3단계를 거쳐야 이를 수 있는 존재이며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이승은 의식, 저승은 무의식에 비유될 수 있다.⁵⁸⁾ 즉 원시종교 내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되고 있다.

넷째, 심리학과 종교와 연금술의 합일이다.⁵⁹⁾ 연금술이란 중세의 화학으로 주된 목적은 일반물질로부터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현대적 의미의 실험과학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표상적, 직관적 때로는 종교적인 사변이 혼재되어 있다. 물질이 지닌 미지의 세계에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인식되는 수많은 상징들이 투사되고 있다. 미지의 물질 속에서 연금술사는 “신의 비밀”을 찾고 있었다. 이런 탐구를 통하여 오늘날의 무의식의 심리학과 같은 방법과 과정에 도달했다고 융은 보고 있다. 현대의 무의식의 심리학도 미지의 객관적인 현상 즉 무의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금술사의 언어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 상징적 상과 모순성이다. 양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삶의 본성과 무의식의 정신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돌은 돌이 아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융은 연금술에 대하여 알고 난 후부터 무의식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즉 자아의 무의식 내용에 의하여 정신의 변환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환은 꿈이나 환상에서 읽을 수 있으나 집단적인 세계에서는 그 침전물이 주로 여러 가지 종교체계와 그것이 지닌 상징적 변환 속에서 발견된다. 융은 심리학, 종교 그리고 연금술과의 관계를 〈심리학과 종교〉(1940)와 〈파라셀

57) 이부영(1998) : 앞의 책, p365.

58) 이부영(1998) : 앞의 책, pp338-348.

59)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p231-242.

시카>(1942)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파라셀시카>의 두 번째 에세이인 <영적 현상으로서의 파라셀수스>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융은 파라셀수스를 통하여 연금술의 성질과 종교와 심리학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즉 연금술을 종교철학의 형태로 논하게 된 것이다. 융은 무의식의 상징성과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항상 깊이 생각을 해 왔다. 서구인의 마음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나 그것이 현대의 시대정신의 세기적 변화에 부응하려면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와 동떨어지고, 인간의 전체성 성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융은 삼위일체의 도그마와 미사의 경분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였는데 미사에 관한 내용은 3세기의 연금술사 요 그노시스파였던 파노포리스(Panopolis)의 초시모스(Zosimos)의 환상과 비교하였다. 융은 '아이온(Aion)'에서 그리스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상을 심리학과 대면시키고 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가 그 시대의 보편적이며 비범한 인격자였으며,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 그 당시 로마제국의 압도적 권력에 의하여 모든 타민족들의 문화적 자주성이나 영적 자율성이 박탈당하는 분위기속에서 구원자의 출현이 기대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대가 집단적으로 투사된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종교적인 문제와 병행하여 정신치료적인 면이 연금술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정신치료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이(Transference, Übertragung)인데 연금술에도 '융합의 개념'으로 전이의 개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1944년 '심리학과 연금술'이라는 저서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추적하여 1946년 '전이의 심리학'이 출판되고, 10년 뒤인 1956년 '융합(融合)의 비의(秘儀)'에서 총 집대성이 된다. 연금술과 심리학과의 대비의 결론으로 '융합(融合)의 비의(秘儀)'가 탄생된 것이다. 융은 연금술을 연금술 심리학으로서 또는 연금술적 기초로서 연금술의 전체 범위를 묘사하고 있다. 융 자신은 '융합(融合)의 비의(秘儀)'에서 자신의 심리학 분석심리학이 결정적으로 현실적인 자리를 얻었고, 역사적인 토대를 이루었다고 회상하고 있다.⁶⁰⁾ 자신의 과업은 끝났고, 작업은 완수되었으며, 이제 그것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하였다. 밑바닥에 도달한 순간 융은 자신이 학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60)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252.

의 마지막 한계에 부딪혔다. 그것은 저 초월적인 것, 원형(原型) 그 자체의 본질, 거기에 관해 융은 더 이상 아무런 학문적 설명도 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섯째, 융의 심성에 대한 사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합일 사상이다. 전체적, 전일적 이해(ganzheitliches Verstehen), 대극의 대상적 이해(gegenständliches Verstehen), 절대지(絕對智, absolutes Wissen), 절대적식성(絕對意識性, absolutes Bewußtheit), 하나성과 전체성(die Einheit und Ganzheit), 對極의 合一(Gegensatzvereinigung), 대극성(對極性, Gegensätzlichkeit), 對極의 合一者(Gegensatzvereiniger),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원칙(sowohl-als auch Prinzip). “道”란 Gegensätze의 非合理的 合一이다” 등등의 표현은 모두 합일사상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⁶¹⁾ 1913년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6년간의 깊은 내향적 삶에서 융의 합일사상이 싹트기 시작한다. 융의 원형이론과 전일성 사상이 싹튼 것은 1913~19년 사이이다. 융은 기본적으로 全一性 사고(Einheit und Ganzheitsdenken)에서 출발한다. 全一은 융의 표현을 빌린다면 Ganzheit(全)와 Einheit(一)이다. Ganzheit는 전체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가시적인 현상의 ‘전체’를 가리킨다. Einheit는 하나임, 통일, 조화를 이르는데 비가시적인 본질의 합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불가 『화엄경』의 一中一切, 一切中一, 一即一切, 一切即一(‘하나임’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임’이 있고, ‘하나임’이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임’)과 유사한 개념이다.⁶²⁾ 대극개념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는 ‘이것 아니면 저것’(Entweder~oder)의 태도가 아니고 ‘이것일 뿐만 아니라 저 것이기도 한’(Sowohl~als auch)태도를 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⁶³⁾ 대극의 일치(coincidentia oppositorum)를 볼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Einheit)’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신의 전일성을 가능케하는 원리가 대극성(Gegensätzlichkeit)이다. 그러므로 융심리학은 ‘대극성 심리학’이라고 불린다. 융에게 대극문제는 인간본성에 고유한 법칙이다. 인간정신은 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은 전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조절되고 있다.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즉 모든 정신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극성으로 인한 대극의 位差(Gefälle)가 있음으

61) 이죽내(2005) : 《융심리학과 동양사상》, 하나의학사, 서울, pp107-126.

62) 이죽내(2005) : 앞의 책, p113.

63) 이죽내(2005) : 앞의 책, p115.

로 가능하다. 용은 모든 정신현상과 살아있는 것을 에너지 현상으로 보았는데 에너지의 움직임은 불가피하게 선행하는 대극에 의존한다. 대극의 위치 없이는 어떤 에너지도 흐를 수 없기 때문이다.⁶⁴⁾ 이와 같이 용은 모든 현상을 대극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외향성과 내향성, 직관과 감각, 감정과 사고, 진행(progression)과 후행(regression), 인과론과 목적론, 정신과 신체, 고통과 행복, 선과 악 등등이다. 대극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은 상반되는 것을 동시에 함께 보는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는 말이다. 즉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논리’로 본다는 말이다.⁶⁵⁾

마지막으로는 삶과 죽음의 합일이다. 용은 그의 자서전에서 ‘죽음 뒤의 생에 대하여’라는 장을 독립하여 다루고 있다.⁶⁶⁾ 그 첫 문장에서 용은 ‘내가 저승과 죽음 뒤의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추억이다. 그것은 그 속에서 내가 살았었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생각이요, 상(像)들이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나의 저작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저작은 결국 이승과 저승 사이의 합동 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려는 언제나 새롭게 되풀이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죽음 뒤의 삶에 대하여 발언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나는 나의 생각을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제 그 생각을 곧장 말해 버리고 말겠다.’⁶⁷⁾ 인간은 이성적, 학문적인 측면도 있고 동시에 감성적 즉 신화적인 측면도 있다.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사후의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신화적인 인간은 ‘그 너머로 가는 것’을 요구하며 인간존재에 대하여 하나의 광채를 부여한다. 심령심리학에서는 죽음 뒤의 계속된 삶이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한다. 즉 죽은 자가 유령으로 나오든, 영매를 통하여 나오든 자신을 나타내고 그만이 알고 있던 것들을 전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유령이나 사자(死者)의 목소리 같은 것이 죽은 자와 동일하나 아니면 심리적인 투사냐 하는 것 또는 그런 사자의 진술이 죽은 자로부터 나오는지 혹시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지식에서 나오는지 하는 의문은 아직 해명의 여지가 남아있는 물음들이다.⁶⁸⁾ 그러나 대부분의 사

64) 이죽내(2005) : 앞의 책, pp116-117.

65) 이죽내(2005) : 앞의 책, p115.

66)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p341-370.

67)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341.

68)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343.

람들 마음 속에 그들의 인생의 현재를 넘어서 무제한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사후의 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원형으로서 인류의 태고로부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무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의식화하여 통합할 수 있으면 정신의 전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⁶⁹⁾ 융은 자신의 꿈 속에서 조령(祖靈), 사령(死靈)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는 사망한 어머니의 출현,⁷⁰⁾ 14일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의 방문 등의 체험⁷¹⁾을 통하여 사후의 생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죽음 뒤에 인간이 가는 세계는 신성(神性)과 자연처럼 위대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무시무시한 곳일 수도 있고, 또한 육체의 짐을 벗어버리고 의미를 자각하게 되는 희열을 느끼게 하는 곳일 수도 있다. 1916년도에 융은 ‘죽은 자를 위한 일곱가지 설법’⁷²⁾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사후의 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융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서로 대극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인간 심성에 대한 보편타당한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융 자신의 삶과 학문이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융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떠나 인간의 정신 속에 무의식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킨 업적, 치료자 자신이 자신의 정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깊이 만큼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융의 전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융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웅이란 보편타당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시대나 영웅은 존재해 왔으며, 영웅의 기본 주제는 삶(birth)-죽음(death)-부활 또는 재생(rebirth)이다. 융은 집단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영웅원형존재를 파악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스스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토벤과 융의 대극의 합일사상은 일상생활 또는 정신과영역에서의 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은 흔히 대극적인 상황 속

69)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344.

70)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p356-357.

71)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351.

72) 아니엘라 야훼(1961) : 앞의 책, pp434-447.

에서 살고 있다. “나”와 “나 아닌 타인”의 상대적 개념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혼자서 스스로 생존할 수는 없다.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며,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직업이라는 것이 모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며, 그 어떠한 직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고 그 댓가로 생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집단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선배-후배관계, 스승-제자관계, 의사-환자관계 등등 모든 것이 관계 즉 대극적인 상황 하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흑과 백, 동과 서, 남과 북,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넓고 좁음, 귀하고 천함, 앞과 뒤, 행복과 불행, 있고 없음, 아름다움과 미움, 더러움과 깨끗함, 증가되고 감소됨, 일정함과 변함 등 모든 것이 이러한 대극적인 관계 하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관계 즉 대극적인 상황에서 모든 인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극관계의 상대적 차별상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되는 즉 “絕對的인 價値”를 추구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하여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와 남의 차별상”이 없어진다면, 타인에 대한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수 있다. “나와 남의 차별상”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듯이 남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의사-환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의사가 의사와 환자라는 대극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환자의 고통이 즉 자신의 고통이 되는 상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진지한 자세, 환자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환자에게 봉사하는 마음, 환자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 등 긍정적인 심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대극의 합일”이란 우리들과 멀리 떨어진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며, 단지 우리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베토벤의 음악적인 사상이나 융의 심리학을 통하여 그것을 성찰하면 ‘자기실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⁷³⁾

73) 조수철(1996) : “絕對의 意味와 省察”, 《신경정신의학》, 35(1) : pp204-211.

나가는 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토벤의 음악가로서의 발달과정과 융의 심리학자로서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서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 문학, 철학, 물리학 등 아주 다양하다. 이것은 어떤 분야의 하던지 자신의 학문만 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이라 하겠다. 최근 들어 통섭(統攝)이라는 용어가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에드워드 윌슨이 학문의 미래를 설명하기 위하여 19세기 자연과학자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의 'consilience' 개념을 부활시킨 용어이다.⁷⁴⁾ 정의는 '지식의 대통합 또는 학문의 대통합'이라고 내릴 수 있다. 즉 학문 간의 벽을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물리학과 화학을 기저에 두고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생리학, 생태학 등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수직적인 관계로 변화시킨 학문 즉 통합생물학의 출현이 통섭적 접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시도도 통섭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학문들의 '인간의 보람된 삶의 실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문 간의 협조 또는 교류를 다학제간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이상적인 접근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학제간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더 나아가서는 범학제간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이 이상적인 접근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⁵⁾ 이들 간의 차이는 다른 학문과 협조체계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학문을 변화시키는데 달려 있다. 즉 자신은 전혀 변화가 없이 물리적인 입장에서 상호작용(physical interaction)이 다학제간 접근이며,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감수하는 화학적 상호작용(chemical interaction)이 간학제간 접근이며,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상태에서의 상호작용(biological interaction)이 범학제간 접근이다. 진정한 의미의 통섭적 접근은 범학제간 접근일 것이다.

융의 베토벤과 융의 핵심 사상을 대극의 합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현대적 의미의 통섭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74) Wilson ED(1998) :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Alfred A. Knoff, Inc. 최재천 장대익역(2005), 사이언스북스, p10.

75) Wilson ED(1998) : 앞의 책, pp20-21.

미래의 학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 이죽내(1994) : 《융심리학과 동양사상》, 하나의학사, 서울.
- 이철(1986) : “C.G. Jung年譜”, 《심성연구》, 1(1) : pp91-100.
- 조수철(1996) : “絶對의 意味와 省察”, 《신경정신의학》, 35(1) : pp204-211.
- _____ (1996) : “Beethoven의 生涯와 音樂-發達學的 觀點-”, 《精神醫學》, 21(1) : pp12-29.
- _____ (1997) : “Beethoven의 아홉 交響曲들-發達學的 觀點-”, 《精神醫學》, 22(1) : pp19-34.
- _____ (1997) : “Beethoven의 후기 현악4중주곡-인격적 발달과 음악적 표현과의 관계-”, 《精神醫學》, 22(1) : pp87-95.
- _____ (2001) : “음악과 정신의학”, 《임상예술》, 12(1) : pp36-48.
- _____ (2002) :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고난을 헤치고 환희로-》,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_____ (2005) : “베토벤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발달학적 측면” : 미발표된 자료.
- _____ (2007) : 《베토벤-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_____ (2010) : 《음악, 인간을 연주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 Bair D(2003) : 《Jung- A Biography 정영목(역 2008)》, 주식회사 열린책들, 서울.
- Broyles M(1987) : “Part II : Beethoven’s Early Style”, Beethoven : Excelsior Music Publishing Co, New York, pp39-96.
- _____ (1987) : 앞의 책, “Part III : The Emergence of the Heroic Style”, pp97-172.
- _____ (1987) : 앞의 책, “Part IV : The Evolution of the Heroic Style”, pp173-267.
- Ciardello JA(1985) : “Beethoven : Modern analytic views of the man and his music”, Psychoanalysis, Rev 72 : pp129-147.
- Drake ME(1944) : “Deafness, dysesthesia, depression, diarrhea, dropsy, and death : The case for sarcoidosis and death”, Neurology, 44(9) : pp562-565.
- Forbes E(1967) : “ Chapter V, The Years 1787-1788-The Operatic Seasons from 1789 to 1792, Thayer’s Life of Beethoven, Revised and Edited by Forb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Knight F(1973) : Beethoven and the Age of Revolution, Lawrence and Wishart, London, pp26-35.
- 아니엘라 야훼(1961) : 《C.G.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이부영역, 집문당, 서울, 1990. p43.

_____ (1961) : 앞의 책, pp45-46.

_____ (1961) : 앞의 책, p59.

_____ (1961) : 앞의 책, pp60, 85.

_____ (1961) : 앞의 책, p117.

_____ (1961) : 앞의 책, p237.

_____ (1961) : 앞의 책, pp341-370.

_____ (1961) : 앞의 책, pp371-399.

_____ (1961) : 앞의 책, pp434-447.

Sheehy N(2004) : Fifty Key Thinkers in Psychology, 정태연, 조은영 공역, 학지사, 서울, pp224-233.

Scott MM(1974) : Beethoven : JM Dent and Sons LTD, London, pp1-10.

_____ (1974) : 앞의 책, pp253-293.

Wilson ED(1998) :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Alfred A. Knoff, Inc. 최재천, 장대익 역(2005), 사이언스북스, pp20-21.

Shim-Sŏng Yŏn-Gu 2011, 26 : 2

〈ABSTRACT〉

Beethoven and Jung*

Soo Churl Cho**

Music keeps significant influences on human mind. According to the analytical psychology, music affects the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both personal and collective). Structurally speaking, music affects the ego, shadow and self.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reviewed the life and work of Beethoven and Jung and investigated the following issues : 1) What were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them? 2) How did the educational processes affect their works? 3) What were the basic attitudes regard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others? 4) What were the fin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achievements of them?

Beethoven and Jung had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hard times during their developmental processes. However, they could achieve mature development in overcoming their difficulties. Both of them were effortful and serious book readers which could help them get wide range of perspectives on human existence and let them introspect deeply into their mind. They both could achieve the ‘Concept of Gegensatzvereinigung’- that is the ‘integration of two contrasting concepts into one wholeness’-. And this concept can be applied in the practical clinical settings for individuation. If psychiatrists could cease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m and patients, they will be able to overcome subjectiv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patients and accomplish objective truth. Finally they could integrate life and death into complexio oppositorum. In doing this, they have achieved eternal life.

KEY WORDS : Beethoven · Jung · Developmental Processes · Introspection ·
Gegensatzvereinigung.

*Read at the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of Analytical Psychology on 21st, April, of 2006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